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 <저문 날의 삽화>를 중심으로 -

전홍남(한려대학교, Jeon, Heung-Nam)

<국문초록>

이 글은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주요 대상으로 그의 소설이 갖고 있는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를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발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박완서의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에 실려 있는 <저문 날의 삽화1-5>연작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노년소설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다소 빈약한 점에 주목해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통해 그의 소설이 갖는 문제성과 미래적 가치를 모색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완서의 소설들은 대부분 1인칭 화자나 ‘나’의 고백체를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사소하고 사사로운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늘어놓는 노인의 화법을 연상시키는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이야기 속에 결코 잊히지 않는 것들을 지극히 선택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작가의 ‘가치적 욕구’가 스며있음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박완서의 이야기는 수다스러우나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공적 담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삽화>형식은 박완서의 문학적 미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용기로서 독자와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작가가 채용한 새로운 담론 형식인 것이다.

다음으로 박완서의 소설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으로써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꿈을 환상적 풍경을 통해 재현한다. 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인간다움의 근거가 와해된, 반생명적 공간이라는 통렬한 인식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노년에 느끼는 생의 허망함은 <저문 날의 삽화1-5>연작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삶 너머의 죽음을 향한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뒤따른 철학적 종교적 조명은 인간 삶의 불가해한 부분들을 갈피갈피 비춤으로써 인생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이른바 박완서 특유의 “문밖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 글은 박완서 노년소설의 범위와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그의 노년소설이 갖고 있는 문제성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의 변별성, 나아가 노년소설의 문학적 함의를 총체적으로 구명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핵심어: 노년소설, 삽화, <저문 날의 삽화>, 담론 특성, 문밖의식, 박완서.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 <저문 날의 삽화>를 중심으로 -

I. 들머리

소설은 장르적 속성상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은 물론이고 당면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룬다. 작가와 작품에 따라 혹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소설은 문학적 차원에서 끊임 없이 각종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소설에서는 주요 사회문제나 사회적인 이슈를 다룰 경우 문학적 장치에 의존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대중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차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으로 인해 문학(소설)은 당시의 사회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져 문제의식의 확산이나 공감의 폭을 넓히는 선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산업화, 도시화로 표현되는 현대화 과정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노년의 삶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문학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특히 우리의 노인들은 외국의 어느 나라 노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이한 인생을 살아온 세대들이다. 대체로 60대 후반의 세대를 놓고 볼 때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온 몸으로 체험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은 시련을 겪은 세대들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측면, 사회적 소외,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노인학대 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근·현대 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대상화해 놓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를 느낀다.

그런데 우리 문학사에서 노년문학이나 노년소설에 대한 연구나 관심은 지극히 미약한 형편이다. 더욱이 문학에서 노인의 삶, 또는 노인문제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또 그 형상화는 바람직한 노년문학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빈약한 상태다. 자연히 그 연구물도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이 노년문학 혹은 노년소설 설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 측면도 있다. 이는 노년문학 혹은 노년소설의 갈래와 그 성격을 규정하기 모호한 측면과도 관련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의 팽배와도 암암리에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의 근·현대 문학사를 놓고 볼 때 노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거나 혹은 노년의 삶을 다룬 소설이 다른 하위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평단이나 연구자의 관심이 적게 되어 자연스럽게 순환논리에 함몰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글은 노년 문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공백을 메꾸어야 한다는 당위적 관심의 소산이 아니라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온 ‘침묵’ 속에 묻혀 있는 세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 글에서 우선 박완서의 노년소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그의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루 알고 있듯이, 박완서는 1970년대에 장편 <나목>이 <여성동아> 장편 공모에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 30년 이상 작품 활동을 지속해 온 작가다. 25권 내외의 소설집을 낸 것이니만큼 1년 반에 한 권씩의 장편소설이나 소설집을 내면서 왕성하게 창작을 해온 셈이다. 그의 나이 70대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후배 작가들이 무색해할 정도로 계속 문제작을 만들어 내면서 문단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나이는 대개 1950년에 등단한 전후 작가와 비슷하지만,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활동은 1970년대에서 지금까지 계속된 특이성도 지닌다.

박완서의 작품세계는 대체로 “각 시대를 원경으로 삼되 대사회적 발언의 톤은 거의 변함이 없는 작가이다. 박완서의 작가적 관심의 최종 목표는 가시적 현실의 소묘보다는 그 현실의 은밀한 배후의 파악과 폭로에 있었다”¹⁾. 하지만 평자들은 박완서에 대해 세태 소설, 병리소설, 풍자소설의 작가라는 평가에 걸맞는 수준의 리얼리즘을 성취해 내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있다. 박완서의 궁극적 관심은 가치 있는 삶의 모색과 해명에 있다. 박완서가 생각하는 삶 속에는 역사도 흐르고 있고 이데올로기도 침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세상살이’를 그려내고 의미화하는 수준에서 소설쓰기를 계속해 온 셈이다.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연구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²⁾ 하지만 작품 연구는 주로 역적모성의 형성이나 전쟁체험의 의미 등 주제비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노년소설에 주목한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박완서의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를 중심으로 그의 노년소설이 안고 있는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를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1) 조남현, “한국문학과 박완서 문학”,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92쪽.

2) 박완서 소설에 대한 연구동향은 2000년 박완서 문학 3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박완서 문학 길찾기>(이경호·권명아 엮음, 세계사)에 조명되어 있으며,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깊은 샘, 2004,)의 “연구목록 및 참고문헌”에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다.

II. 노년소설의 입론과 계보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노인복지 관련 학계나 전문가들에 의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의 일이며, 이때부터 매스컴에서도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역사가 일천한 만큼 문학에서 노인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역사도 길지 않은 편이다. 물론 이 글은 소설(문학) 속에서 노인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노년의 삶에 얽힌 여러 국면을 문학의 소재로 다루는 담론 방식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노인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노년소설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노년소설이라 하면 우선 노인의 개념과 그 연령선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³⁾ 다음으로, 연령설정. 연령은 절대연령, 육체연령, 심리적 연령, 사회적 연령, 그리고 문화적 연령, 이 다섯 유형의 연령을 포괄한 개념이다. 때문에 노령선을 설정하는 것은 인위적일 수도 있으나, 사회측정의 기준의 필요에 의하여 曆年齡으로 60세 이상, 65세 이하를 최저 노령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노령선은 정년과 환갑을 맞는 시기, 노인 상징 중의 하나인 조부모가 되는 시기, 대한노인회 가입이 60세부터 가능한 점과 노인복지법(1981) 상의 노인 규정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노년소설의 세부요건으로는 이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전제조건이 됨은 물론 노년의 인물이 주요 인물로 나타나야 하고, 또 노화에 따른 삶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면 일단 노년문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측면에 대한 천착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노인의 성격 특징으로는 주로 우울증, 수동성, 경직성, 의존성, 조심성의 증가, 내향성, 성 역할 지각의 변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등을 들고 있고, 이외에도 자기중심성, 보수성, 시기심과 질투, 적응력의 저하, 과욕주의 증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노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유형이 있는지의 여부와 노인의 성격 특징을 부정적으로 보는 배경에는 평가하는 쪽의 가치규범이나, 현대사회의 기능적이고 능률지상주의적인 가치규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평출판사, 1991, 42-43쪽

이재선 교수 역시 노년소설이라는 명칭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하게 ‘노년학적 소설(gerontological)소설’이라는 하위 장르를 설정하여 포괄적으로는 ‘노년의 삶, 즉 삶의 적극적인 활동으로부터 은퇴하거나 물러나 있는 노인들의 세계를 다룬 소설’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협의적으로는 도시 소설의 한 종속 장르로서 규정할 경우에는 ‘사회변동기에 있어서 노년의 도시생활 및 도시화와 연계된 삶을 대상으로 묘사하는 소설’라고 그 개념을 규정한 것이다. 4) 김윤식 교수 역시 박완서의 <오동의 숨은 소리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인성 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 노인성 문학의 분류기준이 되어야 할 노인의 연령선과 노인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에 두드러지는 ‘노인성 문학’의 등장을 한글세대인 4·19세대 작가들의 노년화 현상의 반영, 나아가 우리 문학의 참다운 연륜과 정통성 축적의 반영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5)

하지만 위와 같은 기존의 연구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노년소설의 의미와 그 영역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김윤식 교수의 진술만을 따른다면, 노년소설의 생산 주체는 위와 같은 문학사적 의미를 띠고 있는 이들 특정 작가들에 국한되어, 노년에 접어든 그들의 자아가 노년소설의 모방 주체이자 객체가 되며, 그 서사세계 역시 노년화된 그들의 자아와 삶의 자연스러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노년소설을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그 주요 서사공간을 도시로 한정된 것, 혹은 그 생산주체를 4·19세대 작가들에 국한하여, 이를 우리 한국문학의 성숙성과만 관련짓는 것은 도촌(都村)을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삶의 영역으로 간주하거나,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문제성’을 간과하는 제한적인 시각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년소설의 개념을 그 서사 공간이나 생산 주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리에 두어, 이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문제를 극히 자연스러운 반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설은 작가의 윤리가 작품의 미학적 문제가 되는 유일한 문학 장르다. 노인문제는 사회 전반, 특히 경제 분야에서 놀라운 팽창과 ‘진보’를 성취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치부와 맹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의 문학적 형상화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학적이며 동시에 윤리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소설의 범주를 다음과 같은 유형화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우리 시대의 노인들이 현대사회의 전개과정에서 겪은 역사적 체험이 오늘의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삶을 유린하는 양상을 그린 작품들, 이를테면 과거와 현재의 충돌, 그리고 현재를 억압하는 과거의 역사체험이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로는 본격적인 노인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우울한 작품들, 예컨대 소외, 병고,

4)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76-289쪽 참조.

5) 김윤식,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353-356쪽 참조.

고립 등의 문제적 상황이 서사진행의 슬픈 원동력이 된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노인들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의 방법들을 그린 경우로 이런 소설에서 우리는 연륜이 곧 아름다운 삶의 지혜가 되는 세계를 목격하게 되며, 나아가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게 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외에도 몇 가지 또 다른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유형을 놓고 접근해 볼 때 우리의 근·현대소설 소설 중에서 노년소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작품들이 풍성하지는 않으나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1970년대 이전의 소설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히 1930-40년대 소설 중에는 노년소설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이라고 보기에 논란의 소지도 있지만, 노년소설의 초기적 형태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측면이 있다. 이럼 점에서 우선, 박화성과 최정희의 노년기 작품들은 주목을 요한다. 이들은 신식교육을 받은 엘리트로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년의 삶에 얽힌 여러 측면을 그들의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희의 <인간사> 이후에 발표된 노년기 소설들로 <귀뚜라미>, <205호 병실>, <담돌이>, <산>등을 포함하여 <여자의 풍경>과 <제2 여자의 풍경> 등이 될 것이다. 여성작가의 소설과 노년소설의 상관성을 밝히는 연구도 요구된다고 본다.⁶⁾ 물론 노년소설의 창작이 여성 작가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이태준은 그의 소설에서 노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소설 <불우선생>, <아담의 후예>, <복덕방>, <영월영감>, <돌다리> 등은 노년소설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두 여성 작가 외에도 위에 열거한 이태준과 김정한의 작품들, 그리고 김동리의 작품들도 두루 살펴보면 노년소설의 초기적 양상과 담론 특성 및 문학적 의미를 고찰해 본다면 노년소설 연구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정한은 노년기에 노년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듣기 어려운 노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목되는 작가다. 따라서 그의 소설 <추산당과 곁 사람들>(1940)이후 <모래톱 이야기>(1966), <편지>(1968), <수라도>(1969), <인간단지>(1970) 등도 노년소설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김동리의 경우도 노인을 주요 인물로 등장시켜 노년의 삶에 관련된 인생의 여러 측면을 비중하게 다룬 작품들을 발표했다.

한편, 1970년대 이후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가시화되는 시기인 만큼 다루어야 할 대상작품들도 많아진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 김원일, 최일남, 김문수, 이청해, 이규희 등의 작가들의 작품이 우선 주목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박완서는 노년소설과 관련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을 뿐 아니라 1980년대부터 노년의 삶에 얽힌 여러 측면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접근했던 작가다. <오동의 숨은 소리여>를 비롯하여 『저문 날의 삽화』에 실린 연작소설 <저문 날의 삽화1-5>, 그리고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실린

6)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선구적 논의를 펼친 경우로는 서정자의 선행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613-614쪽 노년소설목록 참조.

작품들, 예컨대 <너무도 쓸쓸한 당신>을 비롯하여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공놀이하는 여자>, <마른 꽃>, 이외에도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가(家)> 등도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김원일, 최일남, 김문수 등도 노년을 다룬 소설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최일남의 <흐르는 북>을 비롯해, 김문수의 <유할머니>, <무덤이야기>, <탑골공원 고금>과 연작소설 <서울은 좋다지만>, 그리고 김원일의 연작장편소설 『슬픈 시간의 기억』 등도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소설집 『슬픈 시간의 기억』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비롯해 <나는 나를 안다>, <나는 두려워요>,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등 4편이 실려 있는 바, 노년소설 논의와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청해의 최근작 <예순네 살이 되었을 때>를 비롯하여 이규희의 <그 여자의 뽀박질은 끝나지 않았다>, <황홀한 여름>, 그리고 이선의 중편소설 <뿌리내리기>, <이사> 등도 노년소설과 관련하여 유의한 논의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요컨대 위에서 열거한 작품들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노년소설의 담론화 방식과 그 변모양상에 대해 통시적으로 아우르는데 유의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박완서의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에 실려 있는 노년소설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글은 노년소설의 계보와 성격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지닌 연구물인 셈이다.

III. 박완서 노년소설의 서술 특성

1. 삽화, '기억'에 의한 글쓰기

박완서 소설의 화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레 부딪치는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서 전반적인 여성존재의 문제성이라든지 더 나아가 자신들을 포함한 공동체의 삶이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까지를 자연스레 접맥시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공통점을 보인다. 앞으로 분석하게 될 <저문 날의 삽화1-5>연작은 소설 속의 화자이자 인물이 실제 소설 작품의 창조자와 동일시되게 소설을 꾸미고, 더 나아가 화자의 인식을 소설 속의 이야기와는 별도의 방향에서 일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또 어느 면에서는 화자가 독자들에게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은근히 권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자서전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⁷⁾ 작가와 서술자 그리고 인물을 함께 묶어주는 공유된 정체성이야말로 자서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서전의 성격이 글을 쓰는 현시점에서 저자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나 해석을 한다는

7) 김경수, “여성경험의 소설화와 삽화형식”, <문학의 편견>, 세계사, 1994, 392쪽

점을 감안해 보면 이야기의 허구적 맥락과는 동떨어지게 불쑥 화자의 머리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이야기 전개방식은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들이 드러난다.

(1)나는 고백소 앞으로 가서 줄을 섰다. 내 앞엔 세 사람이 있었고 나하고 같은 연배의 중늙은 이들이었다. 한참 입심이 좋은 나이들이었다. 마냥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기다리는 동안 내 바로 앞의 부인은 줄창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 미세한 진율이 무엇 때문인지 짐작이 안 되는 채로 나는 약간 물러섰다. 웬아불을 것 같아서 싫었다. 그 부인은 나보다 모가지 하나는 작아서 가리마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머리가 빠져 남자의 대머리처럼 반들반들 윤기나는 맨살을 몇 가닥 안 남은 머리칼이 어설피게 덮고 있는 것이 민망하도록 여실히 보였다. 그 부인이 고백소로 들어가 내가 맨 앞 차례가 될 때까지 줄곧 그 대머리는 늙은 여자의 치부를 훑쳐보는 것처럼 나를 참담하게 했다.

오래 걸리리라고 자신 있게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 부인은 곧 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뒷사람들을 돌아다보았다. 세 사람이 더 서 있었고 그들의 무표정에 떠다밀린 것처럼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고백소로 들어서고 말았다. 꼭 공중전화 박스만한 넓이의 실내는 침침하고 형언할 수 없이 고즈넉했다. 기대와는 달리 신부님하고 마주앉게 돼 있지 않았다. 신도는 무릎꿇게 돼 있었고 신부님은 칸막이 저쪽에 계신 듯 했다. 나는 황급히 성호경을 왔지만 그 소리의 떨림이 나의 것 같지 않아 낭패스러웠다.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지만 내 가슴이 두근대는 소리가 하도 명료하게 들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8)

(2) 큰 딸의 공부방이었던 건너방은 지금은 남편의 서재였다. 말이 좋아 서재지 장서는 빈약했고 전문적이지도 장식적이지도 않았다. 딸의 나이 따라 열심히 들여놓아 준 전집들이 세계 명작 동화로부터 문학, 역사 관계 전집류까지 손때보다는 세월의 때가 곱게 찌든 채 간간이 이가 빠진 했지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딸이 직접 샀음직한 털케, 니체, 헷세의 책들도 딸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가 보다는 지적 허영심이나 채우다 말았음이 역력했다. 오래된 리본이나 포장지처럼 사용의 흔적없이 그냥 바라보았다. 남편의 책이라곤 일본말로 된 삼국지와 어찌다 사는 종합지가 몇 권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남편은 친한 친구가 오면 <우리 서재에서 바둑이나 한판 두세> 하기도 했고, <여보 서재에서 술 한 잔 하게 해줘>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방은 남편의 서재였다. 나는 그 방에 남아있는 딸의 의자에 앉았다. 딸이 시험 공부할 때 피곤을 덜어주려고 사준 의자는 폭신하고 뱅글뱅글 도는 회전 의자였다. 묵주의 기도 열 번은 너무 지루했다. 나는 내가 그 기도를 바침으로써 용서받고자 하는 잘못이 무엇이었던가를 골똘히 생각하느라 자주 기도문을 놓치고 헛갈렸다.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게 전도서의 첫 구절을 외고 있었다. (<저문 날의 삽화1>76쪽)

다소 장황하게 인용한 대목들은 「저문 날의 삽화1」의 일부분이다. (1)은 신부님에게 무언가 급하게 고백할 일이 있는 듯이 조바심치며 고백하러 가서 기다리는 장면이며, (2)는 성당에 갔다 와서 “묵주 신공 열 번”의 기도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두 개의 인용문 모두 작중인물인 서술자는 조바심치며, 중요하게 할 일을 앞에 두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

8)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1>, (『저문 날의 삽화』, 문학과 지성사, 1991), 71-72쪽. 이 글에서 박완서의 작품 인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 소설집에 의존한다. 이후에는 인용 말미에 작품명과 쪽수만 적는다.

다급하게, 또 진지하게 할 일이 있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주변상황을 관찰하는 일에 더 빠져 있다. 고백성사를 위해 줄을 서서 앞에 있는 중년부인의 머리를 보고 느끼는 참담한 심정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이나, 한참 동안 앞여자의 머리에 대해 생각한 것과는 달리, 금방 나온 앞 여자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떠밀리다시피 고백소 안에 들어가서는 전화 박스를 연상하는 것은, 이 중늬은이인 서술자의 내면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처음 하는 고백성사”에 긴장하고 조바심친 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저 “건성으로 들릴 만큼 빠르고 성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의 산만한 내면상태를 암시하는 것이다. 상황의 비유성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떠드는 것 같은 장황한 내면묘사는 정작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못하고 내면에서만 수많은 말들을 웅얼거리는 인물의 초조하고 응어리진 내면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2)는 목주 신공을 열 번 하기 위해 남편의 서재로 들어간 주인공의 서술이다. 여기서도 서술자는 서재를 꼼꼼히 관찰한다. 기도를 하러 들어가서는 큰 딸이 쓰던 방이 어떻게 남편의 서재가 되었는가나 서재가 실제로 서재의 의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서재를 이루고 있는 책에서 짐작되는 딸과 남편의 심리를 자세하게 덧붙이면서 설명하고 있다. 행위의 목적은 제쳐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주변적인 것들을 꼼꼼히 관찰하는 인물의 서술은 인물의 내면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물이 하려고 하는 기도가 정작 기도가 되지 않는, 기도하는 것의 허위성과 기도를 믿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두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박완서는 실제로 인물의 행위에 적합한 관심과 그 일에 대한 성실한 몰입은 제쳐두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주변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는 태도는 인물의 상황과 동떨어진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산만성을 고조시킨다. 9)

이러한 양상은 <저문 날의 삽화1-5>연작 외에도 <꽃을 찾아서> <우황청심환> 등 노년의 인물들이 주인공이면서 서술자로 등장하는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한 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삽화식 구성과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전면화 되어 있다.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나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물의 내면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자기 삶의 한 단면임을 보여준다. 즉, 사소한 일상사 구석구석에서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억압된 자아를 의식하려는 서술방식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 소설의 삽화식 구성이 갖는 문학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주목한 조혜정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완서는 사실과 녀살, 익살과 엄살, 달렘과 꾸짖음, 묘사와 설교라는 갖가지 방법으로 여성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똑똑한 이모가 되어, 달래는 언니가 되어, 꾸짖는 엄마가 되어, 조용히 성찰의

9) 이선미, 앞의 책, 163쪽.

눈길을 보내는 친구가 되어 그는 <수다>를 떨기보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여자변종>들을 한테 불러 책을 통한 <수다>의 장을 열어간다. 또 <수다>를 분석하여 차원 높은 수다거리를 내놓는다. <수다>가 공적인 담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0)

위의 지적은 일종의 삽화로서 소설형식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바탕 위에서 삽화라는 양식이 박완서가 추구하는 여성성의 문제와 어떻게 접맥되는가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예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각각의 삽화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작위적으로 연관짓는 식으로, 또는 불쑥불쑥 얘기를 꺼내는 식으로 연결됨으로써, 우리의 일상사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허위의식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것은 일상적 삶 전반에 스며 있어서 쉽게 분별해 낼 수 없는 삶의 허위성을 반성하게 하는 서술방식이 되고 있으며, 자기내면의 깊은 곳까지 탐색해 들어가 억압된 자아를 복원해내고 그것으로 죄의식을 확인하는 서사가 된다. <저문 날의 삽화1>의 한 대목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들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남달리 자식 복이 많아 자그만치 육 남매를 둔 남편의 친구가 상처를 하더니 다음해엔 그마저 따라 죽은 사건은 남편의 친구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다. 그들은 서둘러 사십대의 건강을 면밀히 체크해 보기도 했고 보약을 먹거나 건강식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안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남긴 자식의 반밖에 안 되는 제 자식을 얼싸안으며 두셋만 낳은 단출한 식구를 자축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세상에 육 남매라니, 모아놓은 재산도 없다는데, 말아 줄만한 친척도 없다는데,” 이러면서 알토란 같은 제 식구와 중년의 건강을 껴안은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과 진이 날 듯이 농밀하고 잔혹한 쾌감이 없었다고는 말 못했다. 외할머니가 그 많은 외손들의 치다꺼리를 맡게 되었다는 뒷소식에 적이 마음이 놓이면서도 그 노인의 욕된 장수가 징그러워 몸서리를 치는 걸 잊지 않았다. 남편이 그 육 남매의 유자녀 중 막내인 영택이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그 후 얼마 안 돼서였다.+++...(중략).+++우리에겐 딸만 둘이 있었다. (중략)--딸들은 자라면서 나보다 한결 지혜롭게 영택이를 귀애했다. 딸들은 자라면서 나보다 한결 지혜롭게 영택이를 귀애했다. 남동생이 없다는 걸 아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낳아 들여온 동생이야. 역시 아들은 있어야겠나봐.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도 저렇게 좋아하신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능청스럽게 굴었다. 그 애들의 남동생에 대한 욕심은 대를 잇고 싶다는 우리의 맹목적인 갈망과는 달리 그들이 평생 지게 될지도 모르는 책임에서 놓여나고 싶은 걸 뜻했음으로 한결 용의주도했다. (79-80쪽)

영택이의 부모들이 죽고 외할머니가 외손을 맡게 되어 영택이를 키우게 된 일에 대한 ‘나’의 회상적 진술이다. ‘나’의 생각이지만, 영택이가 고아가 되었다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저마다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 이 반응들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스며들어 있다. 게다가 이 욕망은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가부장 의식, 자기 가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일상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범의식과도

10)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 봄, 129쪽.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과장된 상황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잘 드러나지 않는 자아의 꺾모양인 듯하면 어느새 숨겨진 이면을 탐색하는 서술이 됨으로써 삽화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런 내면서술은 전적으로 한 인물의 내면 목소리로만 서술됨으로써 적나라한 내면심리 묘사가 되기도 한다. 즉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내면 목소리라는 서술상황으로 인해 있을 법한 생각들을 숨김없이 토로하게 되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겹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덧붙이는 듯한 표현도 적지 않다. 덧붙여지는 듯 보이는 서술은 진짜 쓸데없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적나라하게 속 깊은 데까지 파고드는, 이른바 ‘까발리기’식 내면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박완서 소설의 문체적 특성은 이 덧붙임의 서술이 가져다주는 리얼리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 이런 문체적 특성은 독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자기인식을 유도함으로써 회상과 고백의 인식적 효과를 강화한다. 12)

<저문 날의 삽화3> 역시 도자기를 굽는 딸에 대한 화자의 허영심을 통해 미화되고 은폐된 이기심과 속물적 욕망을 발견하고 죄의식을 환기하는 작품이다. 도자기를 굽는 딸이 그럴듯한 도예가가 되기를 꿈꾸는 화자는 딸에게 투사된 자신의 꿈이 한갓 허영심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혐오하는 딸에게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 허영심과 배반감을 드러내는 도입부의 장황한 내면묘사는 동떨어진 삽화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뒤에 이어지는 만수네 이야기와 별 연관성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 삽화는 가난하게 어린 손자들을 키우는 ‘만수네’에게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순간적인 허영심으로 동정을 베푼 일과 연결되어 있다. 딸에게 걸었던 꿈이 자기황홀을 위한 장식적 기능 밖에 하지 못하듯이 어릴 적 화자의 집에서 일을 거들며 살았던 ‘만수네’에게 보인 지난날의 선의 역시 순간적인 자기황홀에 지나지 않았음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로써 삽화적으로 나열된 두 개의 이야기는 자기미화를 위한 허영심을 폭로하는 통렬한 자기반성의 주제로 모아지게 된다.

김경수는 이런 삽화 양식에 주목하여, 작가 박완서가 여성들 개인의 사적 진실과 공적 진실을 연관지으려는 내밀한 의도에서 자전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삽화>양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시대의 여성성에 대한 소설화의 한 특이한 양상을 드러내는 소설의 한 양상”¹³⁾으로서 실제에 가까운 삶의 경험과 허구의 소설적 텍

11) 박완서 소설의 수다스러운 문체나 서술방식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작품의 결함으로 지적된 바 있다. 자기 고백적 회상의 소설들에는 이런 문체적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장황한 서술과 과장된 심리묘사가 많으며, 또 중요한 관찰과 내면 탐색이 심하다. 그러나 이는 결함이라기보다 독자가 인물의 내면 정서에 동화되지 않고 인물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박완서 소설의 서술 특성이라는 점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다.

12) 이선미, 앞의 책, 166쪽.

13) 김경수, 앞의 책, 390쪽.

스트를 상호 연관지으려는 여성 작가의 무의식적 기술방식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위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박완서의 작품들은 이처럼 사소하고 사사로운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늘어놓는 노인의 화법을 연상시키는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된다. ‘삼화’라는 제목에서 삽입된 이야기들이 작고 사소한 내용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노인들은 과거의 기억에 의지하여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작고 사소하나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다. “서사활동은 주체가 사건화 되어 있는 대상을 의미화하여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¹⁴⁾으로서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이야기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의미화를 통해 가치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작가의 ‘가치적 욕구’가 스며있는 것이다. 박완서의 이야기는 수다스러우나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공적 담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내면’적 자아를 통한 성격화

박완서 소설의 인물 성격화방식으로서 서술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소설 창작의 동기가 함축되어 있는 ‘기억’과 ‘복원’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 나오는 ‘복원’은 박완서의 ‘기억’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탁월하다고까지는 생각한 건 소재보다는 그의 특출한 기술방법이었다. 그는 마치 깨진 그릇의 파편을 주워 모아 원형을 재현하듯이 우직하고도 꼼꼼하게 한 지난 시대에 어떤 외진 고장에서 있었던 부정의 추악성을 본디모양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그 드러냄이 어쩌나 선명하고 여실한지 어떤 변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뛰어넘어 한 추악한 시대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 갖도록 했다. 그건 문장력 같은 것하곤 달랐다. 그런 걸 타고났거나 같고 닮은 흔적이 조금도 없는 게 되레 그 수기의 미덕이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부정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권력이 차지한 몫뿐 아니라 그 자신과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 분담한 몫까지를 동정도 과장도 없이 정직하게 드러냈을 뿐이었다. 따라서 흔한 고발이나 폭로의 의도도 엿보이지 않았거니와 속죄양이 되어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쓰는 것처럼 꾸미고, 실은 고백은 손톱만큼 하고 태산같은 위선의 기쁨을 누리려는 참회록 따위하고도 달랐다.

그가 수기의 제목을 「복원」이라고 붙은 건 참으로 적절했다. 깨진 간장종지 하나를 복원시키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파편들을 잃지도 보태지도 말고 고스란히 주워 모아야 하듯이 섬세한 부분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제자리를 찾아 맞춘 그의 기억력은 감탄할 만했다. 십 수년의 세월과 그의 연령으로 미루어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권력과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찰떡같이 맞물리면서 부정을 모의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부정 자체가 지닌 인력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신없이 빨려들게 되는 모습이 여실하면서도 그 꼼꼼한 기록성 때문에 그 동안도 그가 깨어 있었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야말로 그 수기의 마지막

14)우한용, “소설의 서사기능 상실과 회복의 논리”, <현대소설연구>제8호(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6), 466쪽.

진가였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182-183쪽)

인용문은 소설의 한 대목이지만 작가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소설의 의미를 대변한 듯한 인상을 준다. 작품의 주인공인 소설가가 “복원”이라는 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재보다도 그의 특출한 기술방법” 때문이다. 부정의 추악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권력과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찰떡같이 맞물리”는 경위에다가 “부정 자체가 지닌 인력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신없이 빨려들게 되는 모습”까지도 여실히 드러낸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흔한 고발이나 폭로의 의도도 엿보이지 않았거니와 속죄양이 되어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처럼 꾸미고, 실은 고백은 손톱만큼 하고 태산 같은 위선의 기쁨을 누리려는 참회록 따위”와도 구별되는 점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소설 속 주인공인 작가가 주목할 “복원”이라는 수기는 발표되지 못하고 만다. 현실은 이런 자기고발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여전하기 때문이다. 수기를 쓴 자가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상실의 체험은 여전히 억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뒤이어지는 주인공의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는 ‘사실’이 은폐되고 미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강조한다. 따라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라는 이 소설의 제목은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원’은 바로 박완서 문학세계를 가능케 한 ‘기억’의 의미와 상통한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의 서술자인 작가가 주목한 ‘복원’의 의미는 바로 자기상실의 체험마저도 은폐되고 미화되어 여전히 억압되어야 하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는 미적 전략과 통한다. 이때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은폐와 미화의 작업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복원하는 치열한 자기비판과 반성적 자기인식이다. “내면”을 파고드는 인물 스스로의 시선이나 서술자의 시선은 바로 이 자기 반성적 인식에서 나온다. 인물은 은폐되고 미화된 것들을 걷어내고 속속들이 파헤쳐진 ‘내면’으로 성격화되며, 적나라하게 드러난 속내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게 하는 서술방식을 통해 반성적 인식이 유도된다. 인물의 내면을 겹겹이 헤집어 치사한 속내까지도 보고 마는 인물묘사나 자기를 상실한 것으로서 과거를 기억하려다가 과거 자체를 ‘사실’로서 기억할 수 없도록 하는 현실의 실상을 파악해내고 그 현실을 문제시하는 결말에 이르는 구성 역시 ‘기억’의 방법론 때문인 것이다.

작가가 과거의 경험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기억으로 억압의 체험을 복원하려 하듯이, 작품 속 인물들 역시 대사나 행동으로 외화되지 못하고 내면에만 담아두어야 하는 억압된 자아의 면모를 통해 성격화됨으로서 자아의 진상을 드러낸다. 즉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을 통해 억압된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자아의 면모를 간직한 유일한 흔적이다. 억압된 내면적 자아의 면모는 사회역사적 경험이 집약된 최종지점이 되는 것이다. 박완서 소설의 인물 성격화에서 ‘내면’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

다. ‘내면’은 인물의 성격화에 중심범주가 되고, 내면적 자아를 통한 성격화방식을 통해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15) 이렇듯 ‘내면’을 통한 성격화나 내면화된 허위의식을 문제삼는 서술태도는 모두 은폐된 삶의 ‘이면’을 전제함으로써만이 ‘진상’ 혹은 ‘사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면지향적’ 사유에 의한 것이다. 16)

따라서 박완서 소설에서 소설을 통해 인물의 이면이나 삶의 이면이 들추어진다는 것은 개별적 삶에 드리워진 사회 역사적 요인이나 억압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면을 전제하고 그것을 사실로 복원하려는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은 억압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을 은폐하려는 현실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노년소설에서는 그 비판의 강도와 예리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가 따듯함과 그리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차례다.

3. 환상, 환멸을 넘어 그리움으로

박완서 문학의 특징과 그 성향은 대체로 “지식인의 허위의식 비판, 소시민의 물욕, 부당한 권력에 대한 문학적 저항”¹⁷⁾으로 거칠게 요약해 볼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때마다 정확하고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해 왔다. 그런데 <저문 날의 삽화1>의 주인공 ‘나’는 무기력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두 손을 벌리고 매일매일이라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웃을 판단했던 모든 행위가 죄였음을 고백한다.

늦쇠로 된 십자고상은 너무 반짝거렸다. 가까이에서 표정을 살피고 싶어 다가가니 마침 내 입술이 못박힌 예수의 발에 닿았다. 그 우연한 사실에 감동해서 나도 애절한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우러르며 물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과 행위로 못박는 죄인 중 의인은 몇몇이나 되리이까?”(87쪽)

해답을 얻지 못하는 ‘나’의 질문은 미완의 결말을 통해 독자에게 열려 있다. 이는 개인의 일상적 삶은 실제로는 그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잡다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여 빚어낸 결정체라는 것, 때문에 개인의 한 순간의 결단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한다.

15) 이선미, 앞의 책, 26쪽

16) 이선미, 앞의 책, 32쪽.

17)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조그만 체험기>, (박완서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1999) 359쪽.

중년여성의 소외된 삶을 다룬 작품에서 “박완서 소설의 감각 주체들은 감각의 모호함을 항상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비유적 의미를 일순간에 단일하게 고정시켜 버”¹⁸⁾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저문 날의 삽화1>에서는 소설 주체의 해석적 서술이 현저히 줄어들고, 애매모호한 일상의 불가사의를 인식하되 그 인식의 저변을 열어놓는 열림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분명하고 날카롭게 잘못을 적시하고 단죄하는 일방적 당당함보다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내면화된 규범 앞에서 동요하고, 무수한 일상의 사소함이 만들어낸 경직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손주의 조립을 지켜보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거나(<저문 날의 삽화1>, 노부부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중고차를 사며 고속도로를 향해 달려 나가는 것(<저문 날의 삽화4>)은 경직된 자신의 내면화된 규범을 깨뜨려보려는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이와 함께 “감각적 체험의 자아와 이성적 판단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서 공존”하면서 “감각의 모호함을 항상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비유적 의미를 일순간에 단일하게 고정시켜”¹⁹⁾ 버려야 직성이 풀리던 박완서 소설의 인물화 방법도 조금씩 비유적 내면의 진술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²⁰⁾ “전통적 리얼리즘의 관습에 있어서 한 편의 소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은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화자와 피화자 사이의 그것으로 간접화되고 매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주인공 ‘나’의 막막함이나 안타까움이 낯쇠로 만든 십자고상을 대면하고 ‘나’의 입술이 예수의 맨발에 닿았을 때 해소된다는 것은 ‘자신의 페르소나 동반’하고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말을 걸었던 리얼리즘 소설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담화형식을 찾고자하는 작가의 심정을 대변한다.

사전적 성향의 <삽화>양식의 선택을 통해 독자에게 더욱 간절한 공감을 기대하는 것과 주인공이 성당의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 ‘낯쇠로 된 십자고상’에 직접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것은, 추상이나 관념에서 비롯된 허구적 현실보다는 경험 현실 속에서 문제를 직시하려는 작가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문 날의 삽화2>(1987)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무중霧中>(1982), <저문 날의 삽화1>(1987), <우황청심원>,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1991) 등과 마찬가지로 운동권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 소설은 다른 작품들이 운동권 인물과 운동가의 큰 시련이라는 모티프를 단편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또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운동하다가 끌려가 전신이 망가져 정신병원에 가게 된 아들을 둔 한 부부가 겪는 일을 중심사건으로 삼고 있는 이 소설 속의 <나>는 운동권 인물을 남편으

18) 이선미, “여성언어와 서사”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2, 212쪽.

19) 위의 책, 215쪽.

20) 조희경, “「사소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일」의 복원을 위하여”, <한국노년문학연구>III, 푸른사상, 2002, 102쪽.

21) 김경수, “자성소설의 대두와 그 의미”, <문학의 편견>, 세계사, 1994, 62쪽.

로 둔 옛 제자 민가연을 만나 그녀가 겪는 어려움에 동참하게 된다. 민가연의 남편은 몇 년째 운동을 하면서 생활대책은 고사하고 특하면 동지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제가 가진 것 다 벗어주고 친정에서 생활비 대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처음에는 민가연의 남편 편을 들던 <나>는 제자 민가연의 편을 들기 시작한다.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제자 앞에서 그녀의 남편을 욕하고 나서는 “바로 보고, 바로 보기 위해선 자립을”(106쪽)하라고 충고한다. 박완서는 여성성은 곧 관습성이라든가 복종성으로 파악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지켜온 모든 여성들을 향해 자립하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인다.

<저문 날의 삽화1-5>연작, <가(家)>(1989), <엄마의 말뚝3>,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등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노년기에 든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화자로 설정한 작품들이 급증한 점은 노년기에 접어든 박완서로서는 어찌면 자연스러운 변화다. 박완서는 이러한 소설들에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정직하게 응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욕의 태도로 다가가려 하였다. 노인의 눈과 입을 통해 <소묘>에서는 허세를, <초대>에서는 속물근성을, <저문 날의 삽화2>에서는 독선을,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서는 현세중심주의를 꼬집고 있다. 1980-1990년대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생태학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러한 작품들은 들떠 있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동시대인들에게 진정제로서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나아가 “박완서는 노인이나 노쇠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을 발견하려고 한다”²²⁾.

박완서에게 늙음은 순진무구의 단순성으로 회귀하는 길이다. 이제까지 줄곧 박완서를 괴롭히던 그 만연된 허위와 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는 것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인가를 <저문 날의 삽화5>는 폭로한다. 그림 같은 풍경 속의 노후생활이다. 부부애는 신흠 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완숙한 사랑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파국은 복병처럼 노부부의 일상을 습격한다.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한 통의 전화는 평화롭게 늙어 가기를 원하던 부부의 삶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만다. 그리고 그 전화와 함께 떠오른 것은 사실은 낡고 너털너털한 가족관계의 정체이다. 남들에게 한껏 부풀리고 미화하여 살고 있지만 한 순간 그 남루함이 드러나고 말았을 때 전도서는 다시 한번 되풀이될 수 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떴다 지는 해는 다시 떴던 곳으로 숨가빠지고, 남쪽으로 불어갔다 북쪽으로 돌아오는 바람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 아무리 보아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수가 없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저문 날의 삽화1>, 76-77쪽)

22) 조남현, 앞의 글, 98쪽.

노년에 느끼는 생의 허망함은 <저문 날의 삽화1-5>연작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박완서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로부터 차원을 달리하여 ‘불가사의한 일’들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 이러한 시선 전환에 뒤따른 철학적 종교적 조명은 인간 삶의 불가해한 부분들을 갈피갈피 비춤으로써 인생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23) 박완서는 “가족의 실체는 결코 따뜻하고 화목한 색채가 아니라 아비규환과 혼돈, 섬뜩한 고립감이며, 그것이 가족의 진실이라는 것을”24)을 기왕의 작품에서도 드러낸 바 있다. 25)

박완서의 글쓰기는 한마디로 환멸과의 싸움이다. 그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각종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을 억압하는 ‘현모양처효부 이데올로기’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 쓴 많은 소설에서 남편은 가부장제의 군주로서 박완서의 공격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검토하는 일련의 노인성 소설에서 ‘남편’은 동지이면서 적이다. 박완서는 “일상의 이름으로 속 빈 강정 같은 이데올로기의 헛됨을 직시하고 있는 작가의 생존본능은 언제나 허황한 연애놀음을 종식시키며 일상의 안정감으로 삶의 균형 감각을 유지시켜 주는 남편에게서 일상적 모랄 감각을 확인”26)하기도 했지만, “자신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남성들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늘상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해 왔다.”27)

그러나 그의 노년소설에서는 비판이나 경멸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민과 화해와 동지애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진다. “--그가 즐기차게 비판해왔던 가부장적 남성들도 결국 가부장제의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늙어가는 남편 앞에 놓인 죽음을 상징한 노년의 아내에게 일어난 변화로 읽힌다. “우리네 삶을 채우고 있는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적 탐구”28)는 죽음 앞에서 이처럼 깊어져 겸허하고 정직하게 순진무구의 단순성으로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완서는 노부부의 삶을 연민과 애정을 담아 그려낸다. 때문에 노년에 들어선 박완서에게서 예전의 날카로운 남녀간의 대립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죽음을 앞둔 부부의 사랑을 진지하게 그린 작품은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다. 박완서의 작품 가운데 이만큼 남편과 화해를 이룬 작품이 있을까. 남편의 지나온 삶은 비로소 서술자인 아내에 의해 의미화 된다. 그저 그런 남편이었다는 표현 속에는 결코

23) 조희경, 앞의 글, 105-6쪽.

24) 권명아, “<가족의 기원>에 관한 역사소설적 탐구”,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292쪽.

25)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난 아들에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기대하는 것이 환상임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너무도 쓸쓸한 당신>(『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1998)을 들 수 있다.

26) 신수정,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진경시대 예술가의 초상” <해산바가지>(박완서단편소설전집4, 문학동네, 1999), 383쪽.

27) 한만수, “씩 물렸거라 자전거”, <당대비평>6호(1999, 3), 468쪽.

28) 정호웅, “스스로 늙어지고 깊어지는 문학”, <가는 비, 이슬비>(박완서 단편소설집5, 문학동네, 1999), 357쪽.

그저 그런 남편이 아니었다는 작가의 ‘초월적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외삼촌은 “우리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을 서두로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이란 걸 늘어놓고 나서 그의 지체를 캐묻기 전에 짐짓 난감하고도 동정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닥 오랫동안 외삼촌의 시험에 들지 않고, 선대가 종로에서 선전을 하던 중인(中人) 집안이라고 그의 지체를 털어놓았다. 양반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중인이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가 어찌먼 그렇게 담담하고 떳떳한지 나는 속이 다 후련했다.(〈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284쪽)

“물리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과거를 서사 속에서 이념화”함으로써 평범한 남편의 삶에 특별한 의미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문 날의 삽화5〉에서 작중화자인 남편을 통하여 아내의 삶이 의미화 되었다면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에서는 유명을 달리한 남편의 생전의 삶이 아내인 ‘나’의 서술에 의해 이념화됨으로써 두 작품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29)

<가(家)>는 ‘억척어멈’의 맹목적이고 한 서린 모성이 장성한 자식들에게 철저히 소외되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성구’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다. 모자가 살고 있는 ‘집’은 홀어머니의 전 재산이다. 결혼을 앞두고 아들에게 홀어머니는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다. 거기에 외할머니까지 들어와 여인 이대와 함께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성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설은 외할머니의 일생을 그리면서 그 억척스러운 삶의 궁극적 의미를 묻고 있다.

외할머니 교하택은 집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교하택에게 집은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안전한 공간이면서, 그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비롯되는 시발점”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신앙의 대상이다. 그러니 교하택의 삶은 그녀가 평생 노력하여 얻었다고 생각한 ‘집’과 ‘아들’ 때문에 뒤틀리고 일그러졌다. 늦게 얻은 아들에게 집은 물질일 뿐이다. 장성하여 결혼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들은 어머니의 집을 팔아 자신의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쫓아내 버린다.

“박완서 문학에 이르러 가장 뚜렷하고도 선명한 문학적 표상을 얻은 ‘억척모성’은 우리 격변의 근대사의 산물인 동시에 근대사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의 특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³⁰⁾었으나, <가(家)>에서 ‘억척어멈’의 노후는 외손자에게 얽혀 살아야 할 정도로 초라하다. ‘집’이나 ‘아들’에 대한 신앙적 집착은 자식들에게겐 불쾌한 부담일 뿐이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이런 냉엄하고도 비정한 현실

29) 조희경, 앞의 글, 114쪽.

30) 권명아, “박완서-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 찾기”, <역사비평>45호(1998. 11). 392쪽.

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 그의 소설 속에 그려진 노년의 삶 역시 유별나지 않으며 욕망의 한 현장임을 여실하게 축조해 내고 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IV. 맺음말

이 글은 박완서의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에 실려 있는 노년소설을 주요 대상으로 그의 소설이 갖고 있는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를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발했다. 이 글의 원래 기획은 근·현대소설 소설에 나타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출발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혹은 지면의 제약으로 대상작가나 작품들을 대폭 축소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박완서의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에 실려 있는 <저문 날의 삽화1-5>연작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머물러 있다. 노년소설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다소 빈약한 점에 주목해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통해 그의 소설이 갖는 문제성과 미래적 가치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둔 셈이다.

노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완서의 소설들은 대부분 1인칭 화자나 ‘나’의 고백체를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사소하고 사사로운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늘어놓는 노인의 화법을 연상시키는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이야기 속에 결코 잊히지 않는 것들을 지극히 선택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작가의 ‘가치적 욕구’가 스며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박완서의 이야기는 수다스러우나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공적 담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삽화’형식은 박완서의 문학적 미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용기로서, 경험과 허구사이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독자와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작가가 채용한 새로운 담론 형식인 것이다.

다음으로 박완서의 소설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으로써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환상적 풍경을 통해 재현한다. 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인간다움의 근거가 와해된 반생명적 공간이라는 통렬한 인식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노년에 느끼는 생의 허망함은 <저문 날의 삽화1-5>연작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삶 너머의 죽음을 향한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뒤따른 철학적 종교적 조명은 인간 삶의 불가해한 부분들을 갈피갈피 비춤으로써 인생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이른바 박완서 특유의 “문밖의식”³¹⁾이 있었

31) 박완서는 ‘문밖의식’을 “좀 비켜난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경계선에서 가지는 객관적 태도를 자신의 창작태도로 말한 바 있다.(박완서, <서울내기 시골뜨기2>,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209쪽).

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대한 분석의 범위와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그의 노년소설이 갖고 있는 문제성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의 변별성, 나아가 노년소설의 문학적 함의를 총체적으로 구명하는 문제는 후일의 과제로 미룬다.

참고문헌

-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동지, 1997.
- 권명아, “박완서-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 찾기”, <역사비평>45호(1998. 11). 392쪽
- 권명아, “<가족의 기원>에 관한 역사소설적 탐구”,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292쪽
- 김경수, “자성소설의 대두와 그 의미”, <문학의 편견>, 세계사, 1994, 62쪽.
- 김미현, “영원한 농담에서 새로운 진담으로”, <박완서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김윤식,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353-356쪽 참조
-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박완서론”, <문학사상>, 1988. 1.
- 김치수, “젊음과 늙음의 아름다운 의식”, <저문 날의 삽화>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2.
- 방민호, “불결함에 맞서는 희생제의의 전통성”, <박완서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백지연, “황혼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동서문학>, 1999년 봄호.
-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613-614쪽
- 신수정,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진경시대 예술가의 초상” <해산바가지>(박완서단편소설전집4, 문학동네, 1999), 383쪽.
- 양진오, “노인에 관한 명상:박완서 최일남 김원일의 소설을 읽으며”, <오늘의 문예비평>, 2002년 봄.
- 우한용, “소설의 서사기능 상실과 회복의 논리”, <현대소설연구>제8호(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6), 466쪽.
-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 <숙명여대 어문논집>, 1995, 12.
-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 이선미, “여성언어와 서사”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2, 212쪽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76-289쪽 참조.

-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평출판사, 1991, 42-43쪽
- 조남현, “한국문학과 박완서 문학”,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92쪽.
- 정호웅,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문학”, <가는 비, 이슬비>, (박완서 단편소설집5, 문학동네, 1999), 357쪽.
- 조희경, “「사소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일」의 복원을 위하여”, <한국노년문학연구>III, 푸른사상, 2002, 102쪽.
-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 봄, 129쪽.
-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조그만 체험기>,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1999), 359쪽.
- 한만수, “씩 물렸거라 자전거”, <당대비평>, 1999. 여름.
-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박완서 소설의 문체적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2000년, 가을.
- Kristeva, J., “여성의 시간“, 김성곤 옮김, <현대문학비평론>, 한신문화사, 1994.

<Abstract>

A Study on Feature of Discourse and Literary Complication of Park, Wan-Seo's Gerontological Novel.

Jeon, Heung-Nam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extracting the feature of discourse and the literary meaning that Park Wan-Seo's gerontological novels have, making the Old aged novel as a prime object that is in her anthology <Jumunnal's saphwa>. First of all, this text analyzes <Jumunnal's saphwa 1-5>sequence and several novels in her anthology <Jumunnal's saphwa>. Thus, I set an object on discovering the problem this novel has, and the future value through her gerontological novel, considering the deficiency of interest and research of gerontological novel.

Her novels that old women are protagonists mostly use confession form or the first person. Besides, though it develops in a form of reminding of aged narration, we can easily notice of the author's 'valuable desire' through an elective disposing of the things that are not forgettable in the stories. Because of that, her novels function a 'Public discourse' though they are garrulous. An 'episode' form is a new discourse form that the author applied to widen the chemistry with readers.

Next, her novels embody the dreams in an ideal scene that are impossible to be realized in reality, by going and returning to the illusion and the realities of life. This is kind of method revealing the severe recognition that our real world is a place of anti-life.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range of analysis and objects of her gerontological novel will be the next problem to be solved.

key-word: gerontological novel. the feature of discourse, episode, <Jumunnal's saphwa>, Park Wan-Seo.